

공공외교와 해외 한국어교육: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김은미,* 정헌주,**이윤아,*** 박건우****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수행되는 해외 한국어교육의 문제점을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교육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해외 한국어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사례에 적용한 후 정책적 제언을 도출한다. 상대국의 국민들이 한국에 대하여 우호적 태도와 감정을 갖도록 그들에게 직접 접촉하여 수행되는 공공외교에 있어서 한국어교육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의 동남아시아 외교에서 매우 중요한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 역시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해외 한국어교육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본 연구는 이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적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교육 사례를 통해서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조정의 부재와 대상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한국어교육이 공공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정책적, 실천적 대안 검토는 향후 한국 공공외교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공공외교, 해외 한국어교육, 인도네시아, 찌아찌아(Cia-Cia)족

Public Diplomacy and the Overseas Korean Education: A Case Stud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Indonesia

Kim, Eun-mi,* Jung, Heon-joo,** Lee, Yoon-ah,*** Park, Geon-woo****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overseas Korean language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diplomacy and searches for policy implications by taking a closer look at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Indonesia. For that purpose, this study suggests an analytical framework with a focus on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Indonesian case. The overseas Korean language edu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public diplomacy as a communication tool so that foreign publics have good images and amicable feelings toward Korea. Despite the economic and diplomatic significance of Indonesia to South Korea, there have been few research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Indonesia. This study finds that lack of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mong various actors involved in the overseas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policies that had not taken seriously country characteristics have negative effects on Korea's public diplomacy. An in-depth analysis of the overseas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policy suggestions would positively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Korea's public diplomacy.

[Keywords] public diplomacy, overseas Korean language education, Indonesia, Cia-Cia

* 김은미
현직: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 정현주 (교신저자, heonjoojung@yonsei.ac.kr)
학위취득대학: Univ. of Pennsylvania, 현직: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 이윤아
현직: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 박건우
현직: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논문접수일 : 2015년 2월 5일, 논문수정일 : 2015년 2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5년 5월 2일

I. 서론

세계화, 정보화, 지구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의 확산과 시민사회의 성장, 그리고 국제 테러리즘은 국제관계와 외교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국가들 간의 비즈니스에 국한되었던 전통적인 외교로는 자국의 안보를 증진시키고 국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많은 국가들은 상대국의 정부가 아닌 대중들에게 직접 접촉하고 소통함으로써 자국에 대한 호감을 상승시켜 국익증진을 꾀하고 있다.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라 불리는 이러한 노력들은 타국의 협력과 동의를 얻기 위하여 군사적 힘과 경제적 인센티브만이 아닌 새로운 외교적 수단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러한 새로운 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공공외교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김기정 2009; 유현석 2009; 김우상 2013; 김규륜 외 2012; 진행남 2013).¹⁾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한국은 전통적 외교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익증진은 어느 정도 달성하였지만, 공공외교의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즉 경제력에 비하여 세계인들이 한국에게서 느끼는 매력은 여전히 매우 낮다.²⁾ 한 예로 BBC-GlobeScan 매일경제가 지난 2010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국제적 평판은 매우 냉정하였으며, 많은 국가의 국민들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모름/무응답으로 대답하였다(이내영·정한울 2010).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은 2010년을 공공외교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공공외교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성병욱 2013).

이러한 공공외교의 중요한 수단들 중 하나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이다. 언어에 대한 교육은 그 나라의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그 나라의 상품 소비를 촉진시키며, 그 나라를 방문하거나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시키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 나라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박경철 2013, 7-9). 이러한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특히 공공외교 및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적용하여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연구는 매우 적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이뤄지는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제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중요한 사례이며 정책적 함의가 매우 크다.³⁾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자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여러 측면에서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이며, 최근 한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과 공공외교를 강화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첫 번째 한글도입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인도네시아 짜아짜아(Cia-Cia)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난항은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인도네시아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유사한 문제점들이 다른 국가들에서도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과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은 한국어교육을 통한 공공외교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2장에서는 최근 대두되는 공공외교와 해외 한국어교육의 중요성과 현황을 살펴본다. 이어서 제 3장에서는 공공외교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분석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 4장에서는 이 분석틀을 이용하여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교육을 검토하며 특히 제 1호 한글도입으로 주목을 받았던 짜아짜아족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구체적 사례로 삼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제언은 제 5장에서 다룬

1) 대한민국 공공외교 홈페이지
<http://www.publicdiplomacy.go.kr>,
2014/06/30.
2) 연합뉴스 2013년 9월 5일 “한국 평판 세계 50 개국 중 34위…작년보다 3계간 하락”

3) 사례연구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Lijphart 1971; Eckstein 1975; King et al. 1994; 최병선 2006).

다.

II. 공공외교와 해외 한국어교육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는 공공외교는 정부 간 협상과정을 의미하는 전통적 방식의 외교와는 달리 외국의 민간 대중(foreign public)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이다(Melissen 2008, 45).⁴⁾ 구체적으로 이는 외국인과의 직접 소통함으로써 그들이 자국의 문화에 대해 매력을 느끼도록 하여 영향력을 높이고 외교관계를 강화하려는 정부 및 비정부 활동을 의미한다(Leonard 2002; Sharp 2005).

최근 하드파워(hard power)와 대비되는 개념인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증진시키는 유용한 방식으로써 공공외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Nye 2004). 소프트파워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그 국가의 매력에 이끌리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바라는 바를 이루는 힘을 말한다.⁵⁾ 특히 2001년 9.11 테러, 세계적 금융위기 등을 통해 군사력과 경제력이 핵심인 하드파워의 한계점이 드러나면서부터,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외교가 새롭게 재조명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공공외교는 정부뿐만 아니라 NGO,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필요로 하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대국 행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간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김상배 2008; 김기정·최종건 외 2012).

4) “공공외교”란 용어는 1965년 냉전 당시 미국의 전직 외교관인 에드워드 걸리언(Edmund Gullion)이 “에드워드 머로우 공공외교센터(Edward R. Murrow Center for Public Diplomacy)”를 설립한 이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Melissen 2008). ‘공공외교’란 용어의 유래와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fletcher.tufts.edu/Murrow/Diplomacy>, 2014/09/29.

5) 최근 공공외교에 관한 논의에서는 소프트파워를 구성하는 자산인 ‘지식자산(knowledge assets)’과 ‘문화자산(cultural assets)’을 매개로 한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김태환 2011; 김명섭·안혜경 2007).

한국정부 역시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있다(이근 2007).⁶⁾ 특히 한국이 보유한 대표적 소프트파워 자산 중 하나인 한류를 활용한 공공외교가 강조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교육, 세미나, 포럼, 전시, 공연, 축제 등을 통해 외국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한국어/한국학 진흥,” “한류확산,” “매력한국 알리기,” “교육 분야 협력과 청소년 교류증진,” “Quiz on Korea and Video Contest,” “K-pop/K-food World Festival” 등 총 9개 분야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⁷⁾

이러한 사업들 중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 한국어교육은 공공외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⁸⁾ 최근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김효일·권기환 2010). 한국어를 배우는 이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한국 상품에 대한 소비 욕구가 높고 한국을 방문하려는 의사가 크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은 한류를 더욱 확산시키고 지속·심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오문경 2013; 서용건·서용구 2004). 게다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증가에 따른 현지 채용 직원이 증가하면서 외국인들의 한국어학습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다.⁹⁾

해외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우리 정부는 한국의 언어와 문화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2007년부터 백여 개에 달하는

6) 참고로 주요 17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2010년에 실시된 소프트파워 국제평가에서 한국은 12위에 머물렀다(이내영·정한울 2010)

7) 공공외교 홈페이지

<http://www.publicdiplomacy.go.kr>, 2014/06/30.

8) 일찍이 여러 선진국들은 해외에서 자국어 교육이 중요함을 깨닫고 언어와 문화 추진 기구를 설립하여 이의 확산에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국의 공자학원, 영국의 영국문화위원회, 프랑스의 불어연맹, 독일의 괴테협회, 스페인의 세르반테스협회 등이 있다.

9) 서울경제신문 2013년 10월 24일 “[한류 3.0 K스타일 키워라] 한류 확산 디딤돌 한글”

세종학당을 세계 각국에 설립하였다. 공공외교에서 해외 한국어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이에 대한 예산증가와 교육기관 확대에서도 드러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세종학당 지원 예산은 약 70억 200만원이며(문화체육관광부 2012), 최초 13개소로 출발했던 세종학당을 2017년까지 200개소로 확대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또한 2014년도 교육부의 재외동포 교육 관련 예산이 653억 6800만원, 외교부 재외동포재단의 한글학교 지원 관련 예산이 111억 9000만원으로 배정되었는데,¹⁰⁾ 이는 각각 전년대비 약 1.02%, 11.3% 증액된 것으로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요도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한국정부 차원에서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교육부 세 부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병규 2008). 아래 <표 1>는 해외 한국어교육기관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교육부 세 부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해외 한국어교육 프로그램들은 지원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지만 주 교육대상에서 차이가 있으며, 각각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기관을 형태로 구분해보면, 현지 대학에 강사나 교수를 파견하는 프로그램과 재외국민 대상의 한국학교의 경우 현지에서 정식 교육과정으로 인정받는 정규기관인 반면 나머지 프로그램은 비정규기관이다.

요약하자면 공공외교, 소프트파워, 한류 등의 교차점(crossroad)에 한국어교육이 있다.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증진시키고, 국격 상승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한국 상품 소비를 늘리고 관광객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한국어교육은 외교적·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한국어교육은 교육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인물들도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공외교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이처럼 해외 한국어교육은 공공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제

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10) 밴쿠버 한국일보 2014년 1월 9일 “재외동포 교육예산 늘었다”

<표 1> 주요 해외 한국어교육기관

출처: 각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표로 재구성

담당부처	운영기관	교육기관	주요 교육대상	내용	기관형태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재단	세종학당	외국인, 재외동포	독립형 또는 연계형 세종학당 운영비 지원, 교원 파견,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최, 우수 학습자 국내초청연수, 학습 교재 제공, 누리-세종학당 홈페이지 운영	비정규기관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현지대학 또는 교육기관	공적개발원조 수원국 외국인	코이카봉사단원을 원어민 강사로 파견	정규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KF)	현지대학	외국인, 재외동포, 한국인	외국 대학의 한국학 교수 직 설치, 객원 교수 파견, 현지 교원 고용, 재외동포 재단 지원	정규기관
	재외동포재단	한글학교	재외동포	재외공관에 등록된 민간 자생 한글학교에 운영비 지원, 교재지원, 한글학교 교사초청연수	비정규기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	재외동포, 외국인	재외공관에 등록된 민간 자생 한글학교에 교사 지원 및 교재 지원, 재외동포국내초청교육, 한국어능력시험(TOPIK)주관	비정규기관
		한국교육원	재외동포	한국어 강좌 운영, 재외공관에 등록된 민간 자생 한글학교에 운영비 지원	비정규기관
	한국학교	재외국민	재외국민을 위한 정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 교사연수	정규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AKS)	현지대학	외국인, 재외동포, 한국인	외국 대학에 한국학(한국어) 교수 파견	정규기관

<표 2> 분석틀

분류			대내적	
			공공외교 행위자들 간 조정의 정도	
			낮음	높음
대외적	공공외교 대상국과의 상호이해 정도	낮음	유형 I	유형 II
		높음	유형 III	유형 IV

III. 분석틀: 공공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요인

공공외교에 관한 많은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요인들이 공공외교의 성공적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는 미비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공공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대내적 요인으로서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 효과적인 조정(coordination)의 정도이다. 공공외교는 외교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부처들이 참여하고 있는데(Pratkanis 2009; Reinecke 1999/2000), 다양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경우 부처 간 경쟁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Peters 2001, 226). 또한 공공외교의 특성상 정부 부처들과 더불어 학계, 시민사회, 기업들 역시 해외 한국어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강남욱·김순우 외 2012).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주요대상과 구체적 목표, 방법에 있어서는 상이하다. 이 경우, 집합행동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Olson 1971),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행위자들 간의 조정(coordination)의 부재는 과도한 경쟁과 한국어교육의 질적 하락을 가져와 한국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전의 방식대로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 명령에 의한 한국어교육 역시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어교육을 통한 공공외교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관련 행위자들 간의 유기

적 협력과 조정은 공공외교와 관련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한국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대내적으로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효과적 조정의 여부는 공공외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대외적 요인으로서 공공외교에 필수적인 상호이해(mutual understanding)의 정도이다(U.S. Department of State 2005). 성공적인 공공외교를 위해서는 자국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의 역사, 종교, 문화, 사고방식, 행태 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제로 한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Rosenau 1995; Gregory 2008; Brown and Studemeister 2001; 이면우 2009). 반면 상대국에 대한 몰이해와 이에 따른 외교적 실례는 국가 이미지를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자국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즉, 공공외교 대상국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공공외교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이에 기반을 둔 맞춤형 공공외교정책과 수단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대내외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다면 아래와 같은 분석틀이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틀에 따라 공공외교의 수행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 I은 공공외교의 실패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이다. 즉, 공공외교와 관련한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효과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공외교 대상국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낮은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국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상대국민들의 무관심이나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

공외교의 본질적 가치와 목표를 실현시키기 어렵다.

또한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조정의 부재로 인해 공공외교의 한정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거나 자국의 이미지에 대하여 상대국

의 국민들로 하여금 혼동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둘째, 유형 II는 다양한 행위자 사이의 조정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상대국에 대한 고려와 이해가 부족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공공외교와 관련된 행위자들이 가진 외교 수단으로써 자원과 역량은 효율적으로 사용되나, 대상국의 문화적 맥락과 정치,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홍보를 통해 자국의 이익만을 중요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오히려 상대국민들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상대국의 종교적, 인종적 상황에 대한 몰이해는 공공외교의 실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에서 유형 II 역시 성공적 공공외교로 보기 힘들다.

셋째, 유형 III에서는 대상국의 문화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이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행위자들과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다(유재웅 2008). 즉, 공동의 목표와 가치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으나 부처 또는 기관 간의 협력의 부재, 자기 이익 극대화 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공공외교정책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이다(유홍림·윤상오 2006; 김성해·강국진 2009).¹¹⁾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갖고 있는 역량은 있지만, 업무 중복이나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인해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함으로 공공외교의 효과성이 낮은 경우이다. 또한, 이러한

조정 부재는 일관되지 않은 정책들로 인하여 공공외교의 대상인 상대국의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러한 문제들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국가 브랜드위원회’를 설립했으나 제 기능을 다하기도 전에 정권이 바뀌면서 폐지되고 말았다.

넷째, 유형 IV의 경우는 상대국의 문화적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외교정책이 수립되고 관련 행위자들 간의 효과적 조정을 통해 정책들이 집행되는 경우이다. 물론 코완과 아르스노(Cowan and Arsenault 2008)의 연구처럼 일방향적, 쌍방향적 그리고 협력의 방향으로 상황에 맞게 활용되어야 성공적인 공공외교가 수행될 수 있다. 하지만 상대국에 대한 이해는 공공외교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또한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조정이 효과적으로 이뤄진다면 상대국민들이 접하는 자국의 긍정적 이미지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하자면, 공공외교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상대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외교정책에 있어 적정 규모의 인력과 예산 확보 등 역량 강화와 더불어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공공외교의 방향은 앞서 설명한 대내외적 요인이 높은 수준으로 결합된 네 번째 유형이며, 이를 통해 목표한 공공외교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IV.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교육

한국에게 있어 인도네시아는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주요 무역상대국이자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는 한국어교육을 통한 공공외교의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11) 김기정·최종건 외(2012)에 따르면, “한국 공공외교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다양한 접근 방식들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공동의 목표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며, 장기적인 공공외교 수행방식에 대한 전략이 모호하다. 기관들 간 합의된 공공외교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표 3> 인도네시아 내 한국어교육기관 현황

출처: 각 홈페이지 참조하여 표로 재구성

교육기관	지원 및 운영기관	담당부처	위치	주요 교육대상	설립연도	기관 형태
마카사르 세종학당	하사누딘대학교 -배재대학교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재단	술라웨시섬 마카사르시	외국인	2013	비정규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자바섬 자카르타시	외국인		비정규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국립국제교육원	교육부	자바섬 자카르타시	재외국민	1976	정규
인도네시아 대학 한국어 한국문화학과	한국학중앙연구 원		자바섬 드폭시	외국인, 재외동포	2006	정규
가자마다 대학 한국어과			자바섬 욕야카르타시	외국인, 재외동포	2003	정규
파푸아한글학교	재외동포재단	외교부	파푸아섬 센타니시	재외동포	2001	비정규
쯔바라한글학교			자바섬 제파라시			비정규
족자한글학교			자바섬 족자카르타시		2003	비정규
열린한글학교			자바섬 동자카르타시		2012	비정규
스마랑한글학교			자바주 운가란시		2005	비정규
발리한글학교			발리섬 덴파사르시		2000	비정규
반둥한글학교			자바섬 반둥시		1991	비정규
바탐한인/한글학교			바탐섬 바탐시		1994	비정규
밀알한글학교			자바섬 자카르타시		2006	비정규
동부자바한인회부설수 라바야토요한글학교			자바섬 수라바야시		1979	비정규
람봉 망꾸랏 대학교			한국국제협력단		외국인	남칼리만탄섬 반자르마신시
보고르 농대 외국어학당	자바섬 보고르시					정규
방가블리퉁 노동청	방가블리퉁주 빵갈삐낭시					정규
자카르타 KT&G 한국어학당	KT&G -BBB코리아	민간	자바섬 자카르타시	외국인	2014	비정규

다. 또한 인도네시아정부 역시 對한국 인력 수출을 원활하게 하도록 한국어교육에 대한 노력을 증가시켜오고 있다. 종합하자면, 한국정부와 기업, 인도네시아정부,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한국어교육은 그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분석들을 대상국에 대한 고려와 행위자들 간의 효과적 조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한국어교육 사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찌아찌아족의 한글 도입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해외 한국어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공공외교 방향이라 할 수 있는 유형 IV를 위한 함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1. 인도네시아의 특성과 한국어교육의 한계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표 3>는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교육의 주체, 담당부처, 대상, 위치, 기관형태 등을 정리한 것이다. 일반적인 해외 한국어교육과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외교부에서 담당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양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상대국인 인도네시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양적인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의 한국어교육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다. 인구 2억 4000만의 인도네시아에는 현재 한류 확산이라는 문화적 요인과 더불어 경제적 이유로 인해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시민이나 인도네시아 내의 한국 기업과 연계해 일자리를 가지려는 구직자,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보려는 노동자와 같은 한국어 학습자 집단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

러한 집단이 비정규성을 띠는 것이다(조항록·이미혜 외 2013, 4). 대학 등 정규교육과정에서의 한국어교육과 재외동포를 주 대상으로 하는 한글학교를 제외한다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이나 경제적 이유로 한국어 학습이 필요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은 실질적으로 2개의 세종학당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인도네시아 진출은 현지인 고용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한국어교육 수요자의 확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한국어교육기관을 설립한 것은 2014년 KT&G의 자카르타 한국어학당이 최초이자 유일하다.¹²⁾ 이러한 한국어교육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으로 인해 많은 사설학원이 운영되고 있다.

둘째, 인도네시아의 종교적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 한국어교육은 공공외교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적이다. 인도네시아 내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19개 기관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글학교의 경우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재외동포 자녀가 우선 대상이지만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¹³⁾ 하지만, 10개의 한글학교 중 5곳이 교회부설 한글학교이다.¹⁴⁾ 인도네시아인의 약

12) 파이낸셜뉴스 2014년 3월 23일 “KT&G, 인도네시아에 우리기업 최초로 한국어학당 설립”

13) 공공외교가 외국 시민에게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 한국에 대한 호감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고 하였을 때, 재외동포는 외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정주민으로서 성공적 공공외교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고 한국문화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는 재외동포와 접촉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매력을 보다 잘 느낄 것이다. 따라서 재외동포에 대한 해외한국어교육은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며 이는 공공외교의 목적에 매우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글학교를 통한 공공외교의 가능성 역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와 이들을 위한 한글학교가 자바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한글학교 이외의 한국어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14) 재외동포재단 스테디코리안 홈페이지, “한글학교 정보”

http://study.korean.net/servlet/action.kei.HsiAction?p_menuCd=m40202, 2014/07/05.

87%가 이슬람교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기독교 교회부설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인도네시아 일반 국민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종교적 색채가 짙은 국가의 경우 현지인들의 한국어 학습에 있어 종교로 인한 진입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비종교적인 한국어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교육 역시 미흡하다. 인도네시아는 약 1만 7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국가이다. 자바섬, 수마트라섬 등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19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자바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밀집되어 있다(<그림 1> 참조). 섬 간의 이동이 육로 이동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자바섬이 아닌 다른 섬에 거주하는 사람은 한국어학습에 대한 욕구가 있더라도 교육기관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세종학당에서는 누리-세종학

당 사이트를 운영하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보충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인도네시아의 IT 인프라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 전세계에 한국만큼 인터넷 보급률이 높고 인터넷 속도가 빠른 지역이 드물기도 하지만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터넷 사용자의 수가 2011년 기준 100명당 18명 정도로 인터넷 보급이 열악하다. 그마저도 수도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인프라를 잘 갖춘 자바섬 지역의 상황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은 한국어교육기관도 부족하고 매체를 통한 대체 학습도 불가능하다.

앞서의 분석들에서 보았듯이 상대국에 대한 이해는 공공외교의 성공적 수행에 매우 중요하다. 인도네시아에서의 한류확산은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지만, 수요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공급은 공공외교의 성공적 수행을 가로막고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보다 효과적인 한국어교육을 통한 공공외교를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종교적, 지리적 특성에 대한 심도 깊은 고려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그림 1> 인도네시아 내 한국어교육기관 분포

출처: 각 기관 홈페이지 참조 재구성

2. 한국어교육 행위자들 간의 협력과 조정

공공외교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효과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외교의 특성상 상대국의 국민들에게 혼동을 주

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부 부처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그리고 교육부에서 해외 한국어교육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간의 정책조정이나 협력의 수준은 낮으며 이로 인한 자원 낭비의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각 부처에서는 주요 교육대상을 차별화하여 독립적인 해외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대상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재외동포의 출입

<표 4> 교육대상을 기준으로 본 해외 한국어교육기관

출처: 각 기관 홈페이지 참조하여 표로 재구성

대상		지원 및 교육기관	비고
외국인	외국인 (전체)	세종학당,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외국인 (ODA수원국)	세종학당,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코이카봉사단	
재외동포	재외국민	세종학당,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육원, 한국학교	
	외국국적동포	세종학당,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한국인	재외한인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현지 대학 한국학 과정 등록 시

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외동포란 재외국민(외국 영주권을 가졌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외국국적 동포(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과 그 직계비속)를 통틀어 말한다. 이 때 한국어교육 대상으로서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를 나누는 기준은 뚜렷하지 않다. 즉,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학교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수원국¹⁵)으로 지원 국가를 제한하는 KOICA의 ‘코이카봉사단’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기관의 대상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중복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지역에 여러 기관이 설치되어 각 부처, 기관 사이의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¹⁶ 특히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신의 수준에 맞춘 연계교육 보다는 대부분 중복되는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효율적인 한국어교육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조항록·이미혜 외 2013, 52).

또한 이러한 교육기관의 중복은 공공외교에 할당된 한정적 자원을 고려한다면 명백한 예산 낭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해외 한국어교육기관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2005년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한국어해외보급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2014년 현재 지지부진한 역할에 그치고 있는 상태이다(조항록·이미혜 외 2013, 3).¹⁷ 게다가 2006년에 만들어진 3부처 8기관의 협의체인 ‘한국어국외보급사업협의회’는 불과 1년 만에 해체되었다.¹⁸ 정부는 중국의 공자학당처럼 세종학당을 브랜드화 하여 대표 해외한국어교육기관으로 지정했으나,¹⁹ 외교부, 교육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단일

15) “공적개발원조란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뜻하며(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2012), ODA 수원국이란 이러한 원조를 받는 개발도상국을 의미한다.

16) 머니투데이 2013년 9월 5일 “해외 한글교육 기관 세종학당에 외교부 '몽니' 왜?”

17) 2013년 9월 6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외교부 관계자들과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해 ‘국외 한국어보급 효율화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를 실시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어의 국외 보급 활성화를 위해 부처간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총리실 산하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연합뉴스 2013.09.06).

18)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외교부 등 3개 부처, 국립국어원과 국제교육진흥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8개 기관 등으로 구성(국립국어원 소식지 2005).

19) 참조. 월드코리아 2012년 10월 23일 “날개 단 ‘한국어의 세계화’”

브랜드로 통합 운영은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양적으로 인도네시아 한국어교육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가 독자적인 한국어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중복되거나 소외되는 대상자들이 발생하여 한국어교육을 통한 공공외교의 효과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보다 중요한 점은 정부 부처 간의 조정의 문제와 공급 부족의 문제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교육 시설 학원이 난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 학원들은 높은 가격의 수강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 또한 공적 교육기관보다 낮다.²⁰⁾ 이러한 무차별적인 한국어교육 시설 학원의 난립과 이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는 한국에 관심을 갖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일 것이다. 이들이 피해를 본다면 오히려 한국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심각해진다면 反한류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정부 부처, 기업, 시설 학원들 사이의 협력과 조정의 수준은 낮다. 이로 인해 공공외교의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외교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질적 관리가 되지 않는 한국어교육 시설 학원들은 공공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한국어교육 실패사례: 짜아찌아족

짜아찌아족의 한글 도입은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교육 정책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짜아찌아족은 인도네시아 부톤섬에 주로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 부톤섬 내외에 약 79,000명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고유의 언어인 짜아찌아어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표기하는 고유 문자는 없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식 언어와 문자로 바하사 인도네시아어와 로마자를 채택하고

모든 지역에서 인도네시아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젊은 층의 영어 사용 열풍을 감안하면 고유의 문자도 없는 짜아찌아어의 수명이 길지 않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전태현·조태영 2012, 111). 즉 부족어의 보존은 대외적으로 짜아찌아족의 한글 도입²¹⁾에 대한 주요 근거였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짜아찌아족이 한글을 도입하는 과정과 이를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 과정을 공공외교의 관점인 앞서 제시한 이론틀에 적용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 먼저 대외적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와 짜아찌아족의 특성을 고려했는가를 보면 대체로 그렇지 않다. 약 300여개에 달하는 다민족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언어와 문자에 관한 중앙 정부의 정책은 국가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어’로서 인도네시아어와 로마자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전태현·조태영 2012, 118).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대상국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단순히 외국의 소수민족이 한글을 사용한다는 사실에만 집중했다. 실제로 짜아찌아족의 한글교육 사례를 두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앙정부의 언어정책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다.²²⁾

또한 짜아찌아족이 한글을 도입하려는 배경에 대한 공공외교 행위자들의 심도 깊은 분석도 부족하였다. 인도네시아는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를 시작했고 이에 따라 2003년부터 초대 민선 시장인 아미를 타뎀 시장이 바우바우시를 운영했다. 초대 지방자치 단체장으로서 아미를 타뎀 시장은 바우바우시를 크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고 이러한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지와 리더십에 의해 한글 도입이 성사된 측면이 강하다(전태현 2012, 115). 즉, 문자로

20) 참조. 경향신문 2009년 5월 10일 “‘약속의 땅’을 향한 한국어 시험... 인도네시아 전국 시험일 현지리포트”

21) 짜아찌아족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한 것은 아니며 공식적으로 로마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부족어 표기에 한글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연합뉴스 2012.10.18).

22) 인도네시아 중앙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특히 언론의 ‘공식 문자’, ‘중앙정부 승인’이라는 용어 사용으로 불거졌다(김보경 2012; 한경신문 2012.10.09; 오마이뉴스 2012.10.23).

서 한글 자체의 과학적 우수성이라는 요인보다는 한국의 경제적 지원과 협조가 아미를 타뎀 시장에게 짜아찌아족 한글 도입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단적인 근거로, 2008년 훈민정음학회²³⁾와 ‘한글 보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제적 지원을 기대했던 바우바우시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2011년 훈민정음학회와 관계 단절을 선언한 바가 있다. 이후 바우바우시는 2009년 ‘문화예술 교류와 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한 서울시에 경제적 지원을 기대했으나 서울시 또한 인도네시아와 외교적 마찰 가능성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²⁴⁾ 한편 짜아찌아족 입장에서 한글 교육은 부족어 보존을 위해 필요했을 가능성이 크에도 불구하고, 2012년 아미를 타뎀 시장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짜아찌아족의 한글 교육 사업도 탄력을 잃게 되었다(전태현 2012, 128). 결국 이는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특성에 대한 한국어교육 행위자들의 충분한 고려가 낮음을 의미한다.

공공외교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대내적 측면의 요인인 다양한 행위자들의 조정과 협력의 정도 또한 낮다. 초기 짜아찌아족 한글 도입 추진에는 한국 학자, 짜아찌아족, 바우바우시, 훈민정음학회, 서울시가 관여했고 바우바우시 차원에서 훈민정음학회, 서울시와 각각 한글 보급과 문화교류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²⁵⁾ 초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한국 중앙정부는 뒤늦게 2012년에 짜아찌아족이 거주하는 바우바우시에 세종학당을 개설했다. 그러나 바우바우시 세종학당 운영에 참여한 경북대학교 측이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불과 7개월 만에 철수함으로써 세종학당 운영이 중단되었다.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 기관이 각각 짜아찌아족 한글 보급에 참여함

으로써 한정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고 이들 간의 조정과 협의의 부재로 인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조정 실패로 바우바우시와 훈민정음학회, 바우바우시와 서울시 등 관계의 단절과 약화가 발생했다. 대상과의 관계 단절은 곧 공공외교가 실패했음을 단적으로 의미한다.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의 차원에서 어떠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중앙정부와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한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도 갈등의 소지가 존재한다.

짜아찌아족 사례에서 나타나듯 행위자들 간의 조정 부재와 대상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한국어교육의 실패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고 상대국과의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상대국 중앙정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국 지방정부, 상대국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이렇듯 한국어교육을 둘러싼 여러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력관계를 제도화하며 대상국에 맞도록 지원하는 것은 공공외교의 성공적 수행에 중요하다.

4. 소결

분석틀에 근거해 인도네시아 한국어교육 정책을 분석해 보았을 때 결론적으로 공공외교의 실패 유형인 유형 I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 부처들 간의 조정의 정도가 낮고, 정부 외의 행위자들과의 협력 역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대상국인 인도네시아의 종교적, 지리적 특성과 한국어 교육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한국 정부가 유형 IV와 같이 성공적인 공공외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수적임과 동시에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조정을 통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즉, 양적, 질적 수준이 동시에 제고되어야 한다.

23) 사단법인 훈민정음학회는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고 한글의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7년 9월에 설립된 학회이다. 훈민정음학회 홈페이지
<http://www.scripta.kr/>, 2014/05/25.
 24) 참조. 동아일보 2011년 10월 9일 “짜아찌아족 한글 보급 사실상 무산 위기 직면”
 25) 참조. 연합뉴스 2009년 12월 22일 “오세훈-바우바우시 대표단 일문일답”

V. 결론

한국의 경제적, 외교적 파트너로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일본과 중국 중심의 한류에서 동남아시아국가들로 한류는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을 심화, 유지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중심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도 한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인구 규모와 시장규모를 감안할 때 그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듯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공적개발원조의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공공외교의 중요한 축인 한국어교육이 당면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해외 한국어교육을 조정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의 한국어교육은 인도네시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각 기관들(정부 부처들과 사설 학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들을 조정하고 총괄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둘째, 한국어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인구규모 세계 4위인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교육의 수요를 감안한다면, 한국어교육기관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중요한 점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구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인 인도네시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대상국의 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을 고려한 교재 개발, 교수법, 교육장소 선정 등이 필요하다.

또한, 대상국의 특성에 맞도록 한국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는 매우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군도국가라는 특성과 IT산업에

서의 한국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였을 때, 한국어교육과 IT인프라를 연계하는 방식 등 맞춤형 지원책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한국 정부가 수행하였던 IT분야 원조정책과 더불어 IT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의 학습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교육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어교육을 통한 공공외교 강화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인도네시아의 단일 사례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해외 한국어교육의 일반적인 특성을 평가하기는 한계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인도네시아에서 나타난 한국어교육의 여러 문제점들은 다른 국가들에게서도 발견될 것 가능성이 높다. 2012년에는 남태평양의 섬나라 솔로몬제도의 두 개 주(州)에서 한글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짜아찌아족의 도입 이후 두 번째 사례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²⁶⁾ 하지만, 짜아찌아족의 한글도입 사례에서 보듯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조정되고 이들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는 점에서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교육 사례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공공외교의 양적, 질적 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 사례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정부가 추구해야 할 해외 한국어교육의 방향을 설정한다면, 향후 한국 공공외교의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26) 참조. 연합뉴스 2012년 10월 8일 “두 번째 '한글 수출'...한글 과학성·우수성 주목”

참고문헌

- 강남옥·김순우·지성녀. 2012. “한국어교육: 대외 언어 보급 정책 비교를 통한 세종학당 활성화 방안 연구- 중국 공자학원 운영 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제90권, 409-447.
- 김규륜·황병덕·박영호·여인곤·이교덕·강동완·김갑식·이진원. 201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서울: 통일연구원.
- 김기정. 2009. “한국 공공외교의 현황과 과제.” 제10차 한국학술연구원 코리아 포럼 한국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서울, 4월 29일).
- 김기정·최종건. 2012. “한국 공공외교 수행체계 연구.” 외교통상부 연구과제 보고서.
- 김명섭·안혜경. 2007. “9.11이후 미국 공공외교의 변화.”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5권 3호, 299-327.
- 김보경. 2012. “한글 국제화 사례 연구 : 찌아찌아어 표기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 석사 학위논문.
- 김상배. 2008. “네트워크 권력의 세계정치.” 『한국정치학회보』 제42권 4호, 387-408.
- 김성혜·강국진. 2009. “국가의 품격과 저널리즘 외교.” 한국언론재단 연구서 2009-07.
- 김우상. 2013. “대한민국의 중견국 공공외교.” 『정치정보연구』 제16권 1호, 331-350.
- 김태환. 2011. “21세기 신공공외교와 포럼외교.” 『JPI 정책포럼』 제60권, 1-18.
- 김효일·권기환. 2010. “한류 관광 유발 요인으로서 한국어 교육의 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2010년 한국무역학회 제1차 정책토론 및 학술대회(서울, 4월 23일) 123-130.
-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3년 세종학당 사업 예산집행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13. “세종학당 51개국 117개소로 확대 - 체코 등 총 20개국 27개소 세종학당 신규 지정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7월4일).
- 박경철. 2013. “공공외교로서의 한국어 해외 보급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정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서용건·서용구. 2004. “한류가 한국의 관광지 이미지와 관광객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제28권 3호, 47-64.
- 성병욱. 2013. “공공외교의 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대한정치학회보』 제20권 3호, 1-23.
- 얀 말리센 외(Jan Melissen) 저. 박종일·박선영 옮김. 2008. 『신공공외교』. 서울: 인간사랑.
- 오문경. 2013.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보급 정책 연구: 한류 기반 잠재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학위논문.
- 유재웅. 2008. 『국가 이미지: 이론, 전략, 프로그램』.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유현석. 2009. “한국의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전략.” 제10차 한국학술연구원 코리아 포럼 한국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서울, 4월 29일).
- 유홍립·윤상오. 2006.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의 부처 간 갈등 분석: 행자부와 정통부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0권 제4호, 397-420.
- 이근. 2007.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정치경제와 소프트웨어 통상전략』.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내영·정한울. 2010. “소프트파워 경쟁과 한국 매력외교 과제: 17개 파워국가의 국제적 평판 비교.” 『EAI 여론브리핑』.

제76권-수정본.

- 이면우. 2009. “일본의 공공외교 추진체계: 캐나다, 노르웨이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제10차 한국학술연구원 코리아 포럼 한국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서울, 4월 29일).
- 이병규. 2008. “국외 한국어 교육 정책론 정립을 위한 탐색.” 『한국어교육』 제19권 3호, 349-377.
- 전태현. 2012. “찌아찌아족 한글 교육의 실태에 관한 연구.” 『외국어교육연구』 제26권 2호, 113-137.
- 전태현·조태영. 2012. “찌아찌아족 한글 사용의 미래: 문자사의 관점에서.” 『한글』 298호, 107-134.
- 조항록·이미혜·주성일 외. 2013. “한국어 교육 현황 점검 및 교육 지원 전략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과제 보고서.
- 진행남. 2013. “중견국의 소프트파워 증진 방안: 한국의 공공외교를 중심으로.” JPI 정책포럼(제주, 2월 28일).
- 최병선. 2006. “정책사례 연구 다시 보기: 사례연구에 대한 오해와 편견.” 『한국정책학회보』 제15권 1호, 171-197.

References

- Brown, Sheryl J. and Margarita S. Studemeister. 2001. "Virtual Diplomacy: Rethinking Foreign Policy Practice in the Information Age." *Information and Security* 7: 28-44.
- Cowan, Geoffrey and Amelia Arsenault. 2008. "Moving from Monologue to Dialogue to Collaboration: The Three Layers of Public Diplomac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6: 10-30.
- Eckstein, Harry. 1975. "Case Study and Theory in Political Science." In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 1, Political Science: Scope and Theory*. edited by Fred I. Greenstein and Nelson W. Polsby, MA: Addison-Wesley.
- Gregory, Bruce. 2008. "Public Diplomacy: Sunrise of an Academic Field."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6: 274-290.
- King, Gary, Robert O. Keohane, and Sidney Verba. 1994. *Designing Social Inquiry: Scientific Inference in Qualitative Research*.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eonard, Mark. 2002. *Public Diplomacy*. London: The Foreign Policy Center.
- Lijphart, Arend, 1971. "Comparative Politics and the Comparative Metho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3): 682-993.
- Mancur, Olson. 1971.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Nye, Joseph S.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 Paschke, Karl Th. 2000. *Report on the Special Inspection of 14 German Embassies in the Countries of European Union*. Berlin: Aus waertige Amt.
- Peters, B. G. 2001. *The Politics of Bureaucracy* 5th ed, New York: Routledge.
- Pratkanis, Anthony. 2009. "Public Diplomacy in International Conflicts: A social influence Analysis." In *Routledge Handbook of Public Diplomacy*. edited by Nancy Snow, and Philip M. Taylor, 111-153. New York: Routledge.
- Reinecke, Wolfgang H. 1999/2000. "The Other World Wide Web: Global Public Policy Networks." *Foreign Policy* 117: 44-57.
- Rosenau, James N. 1995. "Gover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Global Governance* 1: 13-43.
- Sharp, Paul. 2005. "Revolutionary States, Outlaw Regimes and the Techniques of Public Diplomacy." in *The New Public Diplomacy*. soft Pow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edited by Jan Melissen, 106-123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U.S. Department of State. 2005. "Cultural Diplomacy The Linchpin of Public Diplomacy." Report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Cultural Diplomacy. <http://www.publicdiplomacy.go.kr>, 2014/06/30. <http://www.korean.go.kr/nkview/onletter/20050701/05.html>, 2014/07/05. http://study.korean.net/servlet/action.kei.HsiAction?p_menuCd=m40202, 2014/07/03. <http://www.scripta.kr/>, 2014/09/08. http://www.ytn.co.kr/_ln/0106_201210181653359941_004, 2014/08/16.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2_S01.jsp, 2014/09/29.

http://www.globalwindow.org/quasar_jsp/inc/gw_downloadpdf.html?fileName=/gw_files/NationPDF/101075/101075_101_5058125.pdf, 2014/09/29.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 Choi, Byung-sun. 2006. "Reconsidering Policy Case Studies: Misunderstandings of and Prejudice Against Case Studies."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15(1): 171-198.
- Chun, Tai-hyun and Cho, Tae-young. 2012. "The Future of Hangeul-based Cia-Cia Script: A Perspective of the History of the Writing System." *HAN-GEUL* 298: 107-134.
- Chun, Tai-hyun. 2012. "A Study on the Korean Alphabet Education among the Cia-Cia Community."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26(2): 113-137.
- Kang, Nam-wook, Kim, Soon-woo and Chi, Sheng-nu. 2012. "A Study on the Promotion Plan of Sejonghagdang as a Foreign Policy of Korean Language Providing Compared to the Management Policy of China's Confucius Institute." *Socie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90: 409-447.
- Kim, Bo-kyung. 2012. "(A) Case Study on Internationalization of Hangeul : In the Case of the Writing System of Bahasa Cia-cia."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im, Myong-sob and Ahn, Hae-kyung 2007. "The Transformation of the U.S. Public Diplomacy after 9.11."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25(3): 299-327.
- Kim, Sang-bae. 2008. "The World Politics of Network Power: Beyond Traditional Theories of Power in International Politics."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3(4): 387-408.
- Kim, Woo-sang. 2013. "Korea's Middle Power Public Diplomacy."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16(1): 331-350.
- Lee, Byoung-gyu. 2008.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Overseas Korean Education Policy Theory."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19(3): 1-29.
- Lee, Geun. 2007. "Political Economic Strategy of Korea's Mid-Term Trade Policy and Soft Power Trade Policy." *KIEP Series for Korea's Mid- to Long-Term Economic Strategy* 07-01-01.
- Oh, Moon-kyoung. 2013. "A study of the Policy for the Overseas Dissemination of the Korean Language Using Content Based on the 'Korean Wave' : Targeting a Potential Base of Learners with Hallyu."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Suh, Yong-kun and Shu, Yong-gu. 2004. "The Effects of Korean Fever in Influencing the Image of Korea as a Prime Destination, and the Tourist Decision-Making Proces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28(3): 47-64.